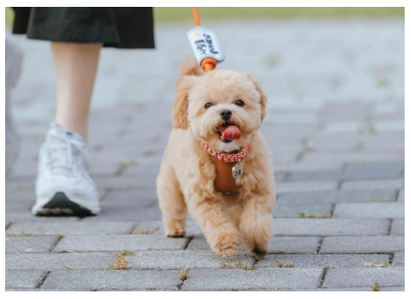
광주 반려동물 8.5만마리…원룸·아파트·공원지역 '펫팸족'


반려동물 동반 문화 나들이. (사진=ACC제공)

광주 전역에 등록 반려동물은 8만5000마리로 나타났다. 동(洞) 중에는 서구 쌍촌동이 최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룸촌' 쌍촌동 3688마리로 가장 많아
운암동 2614마리3월계동 2504마리 순
거주인구·가구·주거영향…공원도 변수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이 몰려있거나 공원과 인접한 지역에서 등록 반려동물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전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8만5077마리다.

자치구별로 광산구가 가장 2만5431마리(29.89%)로 가장 많았다. 북구 2만4477마리(28.77%), 서구 1만8160마리(21.34%), 남구 1만1444마리(13.45%), 동구 5565마리(6.54%) 순이었다. 대체로 자치구별 인구와 비례했다.

광산구와 북구는 광주 지역 내 '펫팸(Pet+Family)'족의 59%가 살고 있는 셈이다.

동별로는 서구 쌍촌동이 특히 3688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 운암동 2614마리, 광산구 월계동 2504마리, 남구 봉선동 2079마리 순이었다.

반려동물 등록 수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많고 원룸 밀집지역(쌍촌동·운암동·월계동), 가족 단위 대단지 아파트(봉선동), 구도심 부촌·중장년층(산수동) 등 동별 주거 문화·환경과 인구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촌동은 4만5800여명으로 거주인구가 많은 편인 데다가 서구 내에서 대표적인 원룸 밀집 지역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5·18기념공원, 5·18역사공원, 운천저수지 등 산책이 가능한 공원과도 가깝다.

운암동 역시 1·2·3동을 통틀어 4만3000여명이 살고 있고 운암시장·경신여고 주변 원룸·다가구 주택이 많다. 중외공원·운암근린공원 등도 있어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계동은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해 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첨단 1·2산단과 인접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거주 형태가 흔하다.

지역 내 학군지로 부촌으로 꼽히는 봉선동은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핵가족이나 은퇴 중장년층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길승호 기자

전남개발공사 '市지역 만원주택' 공급 추진 검토…LH와 업무협약

LH 공공임대 공실 활용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유병용)와 市지역 만원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하여 기관 공급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방식은 L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임대방식으로 전남개발공사에 제공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보증금 없이 일정 금액의 예치금과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전남형 만원주택이 郡지역 중심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협약은 청년 인구 비중이 높고 비교적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용이한 市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물량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이번 市지역 만원주택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정착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대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도민 참여에 감사"

집계결과 56.5% 전국 최고

전라남도는 지난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이자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 도민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5월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5.05%p 상승한 56.5%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감사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평일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준 점에 대해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민이 가진 뿌리깊은 민주 정신과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숭고한 연대 정신 덕분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전남도는 "나흘 뒤 6월 3일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위대한 전남의 저력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민주주의의 성지 전남을 이끌어가는 전남도민의 주권자 의지를 마지막까지 힘껏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면 기자

전남도, 동부청사서 광복 8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역사강사 황현필 선생 초청 '전라도 역사 이야기' 주제…광복 의미 되새겨

전남도는 지난 5월 29일 도청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 강사로 활약 중인 황현필 선생 초청 인문학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연회는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현필 강사는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전라도의 역사와 정체성, 일제강점기 속 전라도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행정과 공동체 삶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인문학 진흥 강연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는 임진왜란, 의병운동, 3·1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전환마다 앞장선 '의(義)의 고장'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항일 독립유산 지정, 남도의 병역사박물관 건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지역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